

아이 키울 맛 나는 순천시 정책 돋보이네



순천 기적의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



기적의 도서관 전경.

매년 한 차례씩 각 국의 어른들을 불러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행복할까'를 고민하고 토론한다. 아이들 생각대로 놀이터를 만들고 도서관을 세웠다. 살기좋은 지역 생태·환경을 아이들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어린이 환경 전문가를 키워내는 가 하면, 맞벌이 부모 대신, 감기 걸린 아이들을 데리고 병원을 찾는 간병인을 두는 사업도 전국 최초로 시작한다. '아이 키울 맛 나는' 도시를 꿈꾸는 순천이 추진중인 정책들이다.

◇고민하고=순천시가 오는 22일 기적의 도서관에서 여는 '어린이 문화포럼'은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어른들이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자리다. 2015년 시작한 포럼은 벌써 3년을 넘겼다. 아이들을 위해 고민할 게 그만큼 많았다는 얘기다. 올해는 일본에서도 불렀다.

올해 주제는 '어린이·도서관·그림책.' 일본 도쿄어린이도서관과 차하로 미술관, 그림책 작가 등이 한국 작가,도서관 관계자, 시민들과 '21세기 어린이들'을 위해 머리를 맞댄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책과 친해지면서 도서관을 찾을 수 있을까'라는 현실적 고민을 비롯, 아이들이 편하게 들을 도서관 만들기 등 어려운 과제들도 포럼에서 논의할 고민거리다.

순천시 관계자는 "어린이 독서문화에 대한 생각을 여러 어른들이 나눠 수준 높은 어린이 서비스 토대가 만들어지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모들에게 아이를 키우는 행복한 환경을 만들어가는 방법을 조언해주거나, 어린이책을 통해 자녀를 이해하는 법을 알려주는 '잠사랑 부모학교'도 순천시 기적의 도서관에서 다음달 17일부터 열린다.

한편, 순천에서는 '청년 꿈 찾기 필독도서 지원 사업'을 통해 19~28세 청년들이 책값 절반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알려주고=순천만은 세계 5대 연안습지 중 한 곳이다. 국내 연안습지 최초로

아이들 행복 위해 토론하고 어린이 환경전문가 키우고 기적의 도서관·놀이터에 어린이 간병인 사업 전국 첫 도입



지난해 열린 어린이 문화포럼에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행복할까를 놓고 고민하며 토론하는 어른들.

람사르협약에 등록됐고 국내 최대 흑두루미의 월동지이기도 하다. 국제 희귀조류 36종을 포함한 240여 종의 철새들이 계절별로 다양하게 도래하는가 하면, 다양한 생물들이 서식하는 생태계 '보고(寶庫)'로 소중히 물려줘야 할 자산이기도 하다.

그만큼 아이들 스스로 지역 문화유산의 중요성을 알고 체험하는 게 중요하다. 순천만 생태학교가 '순천만 꼬마해설사'를 키워내는 이유이기도 하다.

공모를 거쳐 뽑힌 초등학생들 26명은 자연환경해설사, 시민단체 활동가들과 함께 순천만 곳곳을 돌며 생태환경의 중요성과 환경보전의 필요성을 체험하면서 어떻게 가꿔나가야 할 지를 스스로 알아가게 된다.

◇만들어가는='영동발동', '작전을 시작~지'는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놀이터 이름이다. '아이들이 행복한 도시'를 내건 순천시가 '기적의 놀이터'라는 명칭으로 추진중인 역점 사업이다.

기적의 놀이터 1호 '영동발동' 놀이터는 지난해 5월 순천시 연향 2지구 호반 3공원에 들어섰다. 틀에 박힌 놀이 기구 대신, 가공하지 않은 자연 소재인 돌(바위), 흙, 통나무 등을 주 재료로 활용하고 시냇물, 잔디, 언덕, 동굴, 나무 그루터기 등도 자연의 상태처럼 자연스럽게 구성된 게 특징이다.

'작전을 시작~지'는 지난 5월 순천시 해룡면 신대지구에 조성된 '2호' 놀이터다. 초등학생이 직접 이름도 붙였고 스페이스 넷, 워터 슬라이드, 잔디 미끄럼틀, 바구니 그네 등 어린이의 도전과 모험정신을 기를 수 있는 놀이시설로 꾸며졌다.

제 3호 기적의 놀이터'는 올해 말 순천시 서면 강정수변공원에, '제 4호'는 삼산동 업동호수공원에 들어선다. 어린이들이 실제 현장을 꼼꼼하게 점검하는가 하면, 놀이터의 주인인 어린이 의견을 반영해 만들어진다는 건 모든 놀이터에 적용되는 공통점이다.

◇아픈 아이 보살피고 꿈 통장 만들어 주고=아이들을 배려하는 정책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순천시가 내년 추진하는 '어린이 건강지킴이 사업단'은 자녀가 질병·사고 등으로 입원할 경우 간병인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자녀들의 갑작스런 사고에도 대처하기 쉽지 않은 맞벌이 부부, 한부모가정, 다자녀가정 등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다. 전국에서 처음 시도되는 것으로, 순천시는 관련 사업비로 1억2000만원을 확보해 만 3개월 이상~만 12세 이하 아이들을 둔 부모들에게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순천에서 첫 자녀를 출산한 부모들에게 매월 5만원씩 5년 동안 적금을 지원하는 '순천아이 꿈 통장'도 눈길을 끄는 사업이다. 순천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3자녀 이상에 대해서만 지원하던 방침을 첫 아이도 가능하게 바꿨다. 부모에게 출산양품을 주는 것은 기본 서비스다.

순천시 관계자는 "아이들의 꿈이 잘 저축될 수 있는 다양한 출산장려 정책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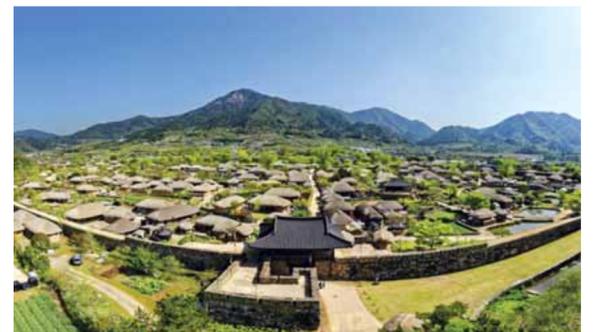
◇아이들이 살기 좋은 도시로=순천시는 이같은 아동 친화 정책을 바탕으로 오는 12월 세계가 인정하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 인정받겠다는 구상이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는 1989년 유엔에서 채택한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 권리가 보장되는 지역사회, 아동 목소리와 의견이 반영되는 행정체계를 구축한 지역사회를 말한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만들고 '아동·청소년 의회'를 구성해 운영하는 한편, 아동 청소년 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4개년 계획도 수립 중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비롯, 아이들이 살고 싶은 순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낙안읍성 전경.

내달 20~22일 낙안읍성 민속문화축제

성곽쌓기·농악경연 등 다채

'제 24회 낙안읍성 민속문화축제'가 오는 10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열린다.

이번 축제는 '2020 세계문화유산 등재, 낙안읍성 세계인의 품으로'라는 주제로 성곽쌓기, 기마장군순라의식 등 전통행사와 군악, 사물놀이 등 다채로운 민속공연이 펼쳐진다.

'낙안읍성 전국사진촬영대회'에 참여해 가을 낙안읍성을 담아보거나 지

역 품물단체들의 '농악경연'도 즐길 수 있다.

선조들의 삶의 지혜와 옛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삼베옷 만들기 길쌈재현, 벼탈곡, 인절미 만들기, 낙안읍성 팔진미 시식행사 등 체험프로그램과 남도의 풍성한 맛을 접할 수 있는 '제 4회 순천 전통음식 페스티벌'도 열린다.

순천시 관계자는 "축제를 계기로 낙안읍성 정주 환경, 전통음식과 민속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순천 그림책 도서관의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린이들.

<순천시 제공>

그림책 작가들 만나 이야기 나눠요

25~29일 5명 초청

그림책 작가들과 만나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됐다.

순천시는 그림책 원화 전시를 통해 친숙한 그림책 작가 5인을 초청, 오는 25일부터 29일까지 그림책도서관에서 '월·화·수·목·금 그림책 작가들 찾아라!'라는 프로그램을 연다.

한병호 작가는 25일 지역 초등학교 아이들을 대상으로 도깨비탈을 함께

만들고 권정민 작가는 26일 순천 60여 개 작은도서관 운영자들과 만난다. 이 역배 작가는 27일 신대도서관에서 가족들을 대상으로 이야기를 풀어가며 한태희 작가는 28일 풍덕도서관에서 초등학교 아이들과 집에서 학교가는 길을 함께 그리는 체험을 한다.

김동성 작가는 29일 순천 문화의거리 내 음악이 있는 콘서트를 진행한다. 문의 061-749-8892.

/순천=김은종기자 ejkim@




추석선물은 한국제다 명인이 만든 작설차로!

www.hankooktea.co.kr

장성, 영암, 해남의 싱그러운 차밭을 모아 70년의 세월동안 녹차 본연의 맛을 추구한 한국제다.

대한민국 식품명인, 국제 녹차 품평회 최우수상 수상.
LA외 5개국 수출, HACCP 및 ISO22000 인증을 획득.
아시아나 항공기내 차납품으로 그 맛을 인증받았습니다.

을 추석에도 명인이 만든 명차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온가족과 함께하는 추석

한가위 Festival

무지개 Set, 사계절 Set, 감사 Set

제품문의 한국제다 본사 062-222-3973 | 차생원 본점 062-232-3973 | 광주 신세계점 | 광주 롯데점 062-221-1037 | 부산 차생원 051-7007~8